

8회 우승 vs 첫 우승...수성이나, 설욕이나

(SK텔레콤 T1)

(그리핀)

31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서 결승 지난 스프링 시즌 이후 또 맞붙어 T1, 포스트시즌 상승세 유지 관련 그리핀, 2회 연속 준우승 설욕 다짐



전통의 강호 SKT T1과 새로운 강자 그리핀이 31일 LCK 결승에서 맞붙는다. (왼쪽부터)그리핀 '소드' 최성원, SKT T1 '페이커' 이상혁, 그리핀 김대호 감독, SKT T1 김정균 감독, 그리핀 '리헨즈' 손시우, SKT T1 '칸' 김동하가 27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힘들게 올라온 만큼 우승하겠다.” (페이커 이상혁)
 “지난 번에 3대 0으로 당한 것을 돌려 주겠다.” (소드 최성원)
 3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 우리은행 리그 오브 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결승에서 전통의 강호인 SK텔레콤 T1(이하 T1)과 새로운 강자로 자리잡은 그리핀이 맞붙는다.
 두 팀은 지난 스프링 시즌 결승에서도 격돌해 당시 T1이 그리핀을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래서 이번 결승에 나서는 두 팀은 '8회 우승'과 '설욕, 그리고 첫 우승'이란 양보할 수 없는 목표를 갖고 있다.
 T1은 이번 결승 무대를 어렵게 밟았다. 시즌 후반에 명문다운 저력을 발휘했지만, 초반에는 연패의 늪에 빠져 고전했다. 결국 4위로 포스트시즌에 어렵게 진출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 들

어서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플레이오프 1,2라운드에선 상대를 3대 0으로 낙아우 시켰다. 김정균 T1 감독은 27일 서울 종로 LoL파크에서 열린 결승 미디어데이에서 “어렵게 결승에 진출했는데, 방심하지 않고 경기 준비 잘해서 우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규리그 1위로 결승 무대에 서는 그리핀은 지난 시즌의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지난해 서머시즌에 처음으로 1군 무대를 밟은 그리핀은 곧바로 결승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후 이번까

지 세 시즌 연속 결승에 올라 상승세가 결코 운이 아닌 실력임을 입증했다. 다만 아직까지 '돌풍'이란 꼬리표는 떼지 못했다. 앞선 두 번의 결승에서 모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김대호 그리핀 감독은 “우리가 3대 0으로 이길 것 같다. 우승하면 기세를 유지해 롤드컵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T1과 그리핀, 어느 팀이 우승을 하더라도 이미 챔피언십 포인트 1.2위에 올라 있어 두 팀 모두 10~11월 유럽서 열

리는 'LoL 월드챔피언십'(롤드컵)에 출전한다. 선수들은 이번 대회 우승을 발판삼아 롤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리핀의 '리헨즈' 손시우는 “이길 생각 밖에 없다”며 “롤드컵도 남아있으니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T1의 '칸' 김동하는 “서머 시즌 때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 저력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줬다”며 “이번 결승에서도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27일

코스피지수	1924.60	▲	+8.29
코스닥지수	588.32	▲	+5.41
日 닛케이 지수	2만456.08	▲	+195.04
中 상하이 종합	2902.19	▲	+38.63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12	▼	-0.05
환율 (원·달러)	1213.00	▼	-1.50
국내금값 (원/그램)	5만9775.91	▲	+120.75

오리온 '착한포장 프로젝트' 중국·베트남에서도 통했다

오리온은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가격변동 없이 제품의 양을 늘리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사진)로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서는 5월 '하오요우취'(스윙칩)를 20% 증량한 후 7월 매출이 증량 전 대비 75.9% 성장했다. 베트남에서는 2월 '오스타'(포카칩)를, 5월에는 '스윙'(스윙칩)을 20%씩 증량한 이후 매출이 증량 전보다 각각 17.6%, 8.3% 성장했다. 두 나라에서 기존 제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베트남에서는 2분기 오스타와 스윙이 이끈 스낵 부문 매출 확대에 힘입어 1분기 실적 부진을 극복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증량 효과를 이용해 스낵 시장 점유율을 높여 매출 턴어라운드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오리온은 2014년부터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지속해 16개 제품의 양을 늘렸다. 원성열 기자

8년 만에 풀체인지...볼보 '3세대 신형 S60' 공식 출격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3세대 신형 S60을 공식 출시했다.
 플래그십 라인업인 90클러스터와 동일한 SPA(Scalable Product Architecture) 플랫폼을 기반으로 8년 만에 선보인 완전 변경 모델이다. 또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가솔린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용으로 개발된 첫 모델이다. 국내에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차저 T5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한 모델이 출시된다. 최고출력은 254마력(5500rpm), 최대토크는 35.7kgm이며,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시간은 6.5초다.
 차체는 더 커졌고, 디자인은 감각적으로



▲볼보 3세대 신형 S60

업그레이드됐다. 이전 세대보다 125mm 늘어난 전장(4760mm)과 50mm 낮아진 전고(1430mm), 15mm 줄어든 전폭(1850mm)으로 설계되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실내 공간도 여유로워졌다. 이전 대비 96mm 늘어난 동급 최고 수준의 휠베이스(2872mm)를 적용했다.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볼보의 첨단 안전

기술인·하이브리드 전용 첫 모델 제로백 6.5초...첨단사양 모두 장착

사양을 거의 모두 장착했다는 점이다. 전 트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와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를 기본 탑재했고, 앞 차와의 간격을 사전 설정한 거리로 유지하며 최대 시속 14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운전자 보조기술 '파일럿 어시스트 II'도 기본 사양이다. 인스크립션 모델에는 총 출력 1100와트의 15개 스피커로 이루어진 영국 하이엔드 브랜드 바위스&윌킨스(B&W)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360°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탑재했다.
 판매 가격은 모넨트 모델이 4760만 원, 인스크립션 모델은 5360만 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더 오싹해졌다"...에버랜드 '블러드시티 시즌3'

30일부터 할로윈 테마 축제 개막
 용인 에버랜드가 30일부터 11월17일까지 할로윈 축제 '블러드시티 시즌3'를 진행한다.
 축제 기간 동안 알파인, 사파리월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블러드시티'라는 이름의 공포체험 공간이 된다. 특수 분장을 한 배우와 좀비 연기자 100여 명이 '블러드 시티' 곳곳에서 감

작 출몰하고 어트랙션, 공연, 탈출, 분장 등 다양한 호러 콘텐츠를 준비했다.
 올해는 새로 1500m² 규모의 램퍼레인지가 아간에 좀비 바이러스에 오염된 램퍼연 구센터 포스트사포트로 바뀌고, 옆에 서커스 유랑버스를 콘셉트로 한 '좀비 스테이션' 포토스팟도 마련했다. 또한 티익스프레스와 아마존익스프레스도 아간에 호러 어트랙션으로 변신한다. 수십 명의 좀비들이 등장하는 '크레이지 좀비 헌트' 공연도 새로운 무



에버랜드 할로윈 축제의 가족 방문객을 위한 매일 낮 2회 공연하는 '할로윈 위키드 퍼레이드'(왼쪽)와 '블러드 시티 시즌3'에 등장하는 대형 좀비. 사진제공 | 에버랜드

대에서 축제 기간 매일 밤 열린다.
 한편 가족 방문객을 위해 주간 공연인 '할로윈 위키드 퍼레이드'를 매일 2회

30분씩 실시하고, 거리 공연 '달콤살벌 트릭오어트리'는 무대를 포시즌스가든으로 옮겼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SKT-MCN협회, 5G 활용사업 MOU 체결
 SK텔레콤은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결성한 한국엠씨엔(MCN) 협회와 5G 기술 활용 사업 모델 발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5G 기술을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제공해 새 사업 모델을 개발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우선 9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5G 기술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MCN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신규 사업 모델에 기술 지원과 투자도 검토하기로 했다.

LG, 스마트폰에 네이버 '웨이' 기본 탑재
 LG전자와 네이버가 손을 잡았다. LG전자는 네이버와 협업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신제품에 네이버의 웨일 브라우저를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공개 예정인 스마트폰 신제품에도 웨일을 적용할 계획이다. 네이버 웨일은 하나의 탭에서 다양한 작업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화면분할 기능을 갖췄다. LG전자는 애플리케이션의 동시 사용과 분리사용이 가능한 듀얼 스크린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편, 네이버는 10월부터 웨일 외국어 버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LGU+, 엔비디아와 '지포스 나우' 선택
 LG유플러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5G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사진)를 국내에 선보인다. 지포스 나우는 5G 스마트폰과 PC에서 다운로드 없이 이용 가능한 엔비디아의 게임 서비스로 북미와 서유럽에서 무료 시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9월부터 상용화 전까지 5G프리미엄 요금제 이상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기 PC게임과 콘솔게임 PC버전 등 약 150여 종의 게임을 무료 체험으로 제공하고 연말까지 200여 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제주항공 김포-부산, 프리미엄 좌석 도입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이 앞뒤와 좌우 간격을 넓힌 프리미엄 좌석인 뉴 클래스를 9월 1일부터 김포-부산 노선에서 서비스한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서비스인 뉴 클래스는 현재 부산서 출발하는 싱가포르, 타이베이, 다낭, 도쿄, 후쿠오카 등 국제선 5개 노선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김포-부산 노선의 뉴 클래스 서비스는 화·목·토요일 오전 7시35분 김포 출발 편과 월·수·금요일 오후 7시30분 부산에서 출발하는 편에서 운영한다.
 뉴 클래스는 기존 189석의 좌석 배치를 174석으로 줄여 좌석 간격을 늘린 새로운 형태의 좌석 12석과 기존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162석으로 이루어졌다. 12석의 새로운 좌석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기존 3-3 배열이던 좌석을 2-2로 바꾸고, 좌석 간격도 현재 41인치로 늘렸다. 김재범 기자